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회개의 기도로 사순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1절 107주년입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3월부터 전반기 방모임을 시작합니다. 방별로 준비해 주십시오.
- 공동생활위원회 정기회의가 5일(목)에 있습니다.
- 멧쟁이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 및 1학기 개학식이 오후 5시에 있습니다.
- 멧쟁이학교 개학여행이 2일(월)-5일(목) 경주 켄싱턴리조트에서 있습니다.
- 2026년 연령별 사랑방 교사 (교역자/교사/부장)

어린이 · 푸른꿈 : 이어진 전도사, 석지인 전도사, 석용범 집사  
 늘푸른 : 장영미 전도사, 채영학 집사  
 젊은이 : 최기찬 전도사, 김중필 집사  
 담당교역자 : 정다운 전도사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병우 · 정영옥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채영대 집사 · 장지영 권사 가정 (감사)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3 - 9 호

2026년 3월 1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3.1 만세운동과 한국교회의 기여

교육시설을 세우고, 신문을 창간하며 민중계몽에 나선 기독교는 1884년 복음이 들어온 후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했다. 반상의 차별을 없애고, 여성들에게도 신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는 3.1운동 전후 나타난 다양한 사건 속에서 확인됐다. (중략)

3.1운동에서 기독교의 공헌은 어느 정도였을까. 기독교 역사가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초기 조직화 단계의 거의 모든 흐름에 기독교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으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민중운동화 단계에서도 교회는 전국의 조직과 지도자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의 조직과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3.1운동의 신속한 확산과 장기적 지속은 어려웠을 것이란 설명이다. (중략) 3.1운동 민족대표 33인과 독립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은 15명을 포함해 총 48명의 민족대표 가운데 23명이 기독교인이었다. 오산학교 설립자 이승훈 장로와 장대현교회 길선주 목사, 종교교회 오화영, 월산상리교회 정춘수 목사 등은 상해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2.8독립선언' 소식을 들은 후 만세운동을 준비하며 천도교와 함께 민족연합전선을 구성했다. 민족대표 48인에는 27세에 불과한 연희전문학교 3학년의 장로교 신도 김원벽도 있었다.

조선총독부 집계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일어난 만세시위가 848건에 달했다. 시위 인원은 연인원 60만 명이었다. 만세운동으로 수감된 9000여 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22.4%로 가장 많았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8회 회의록에도 3.1운동으로 인한 교역자들의 피체와 투옥이 보고됐다. 당시 체포된 성도는 모두 3,804명이었고 이 중 목사와 장로가 134명, 기독교 관계자로 체포된 지도자가 202명, 감금된 남자 신자가 2,125명, 감금된 여자 신자가 531명, 사살된 자 41명 등이었으며 파괴된 교회당이 12개에 달했다. 당시 기독교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1.8%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희생이 아닐 수 없었다.

기독교의 역할이 만세운동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만세운동이 소강국면에 들어갈 즈음, 기독교인들은 시위운동에서 축적된 대중운동의 역량을 발휘해 독자적인 비밀결사를 조직했다. 교회사 100장면에 정리된 '3.1운동과 한국기독교'에는 "비밀결사의 주된 목적은 상해 임시정부와 통신하고 국내에서 의연금을 모집해 상해로 전달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독교인들은 한국독립에 대한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재외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활발한 외교활동이 전개된 것이다. 서재필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한국인자유대회'를 열고 일본의 학정을 폭로하며 한국의 독립의지를 알렸다.

3.1운동을 이야기할 때 '유관순 열사'가 떠오르는 것은 기독교 여성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름이기 때문이다. 16살 어린 소녀의 몸으로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이끈 유관순 역시 이화학당 학생이자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 신여성이었다. 당시 이화, 정신, 배화학교 등 기독교계 여학생들에게는 독립운동 권유가 있었고, 비밀리에 3.1운동 준비가 시작됐다. 교단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조직력을 갖춰 나가던 기독교 여성들은 만세운동이 소강국면에 들어갈 무렵, '대한애국부인회'를 결성하며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등 제3의 독립 주체로 제 몫을 감당해왔다.

교회가 정착한지 불과 3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독교는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3.1운동 직후 기독교는 교회폐쇄와 성도수 감소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민족 종교로서 탄압받는 민중들의 지도자로, 그들의 아픔을 나누는 '이웃'으로 십자가정신을 발휘했다.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는 "옛날 국가가 힘이 없던 시절에는 교회가 중심적 역할을 감당해왔다"며 "기독교만큼 독립운동에 직접적으로 간여한 종교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해방 이후 건국에 있어서도 자유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 선 것이 바로 기독교"라며 교회가 고난 받는 민족의 '이웃'이었음을 강조했다.

## 영화 '왕사남'에 깃든 공동체 정신과 사랑

### 한주간의 말씀

“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

< 로마서 4장 5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61, 499 / 505

기도 :

성경 : 사도행전 13장

제목 :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위해 세움 받다

1-3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다.

해석: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적용: 선교(선교사, 선교지)를 위해 지원을 계속하자.

4-12 서기오 총독이 주님을 믿다.

해석: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방해가 있어도 전해지도록 되어 있다.

적용: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자.

13-52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해석: 복음은 확장(넓혀져 가는)되는 특성이 있다.

적용: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자.

요즘 천만 영화의 꿈을 꾸고 있는 '왕과 사는 남자' 보셨어요? 저는 설 연휴에 시어머니 보여드리려고 영화관에 갔어요. 그땐 200만 관객을 모았던 영화가 지금은 800만을 넘어 천만 관객이라는 대기록을 쓰려고 하네요. 영화를 본 뒤 단종과 관련된 역사를 다시 찾아보거나 단종의 유배지였던 영월에 직접 가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국 영화가 다시 살아나는 데 한몫을 하는 영화가 나온 게 참 좋습니다.

'역사가 스포'라는 약점이 있는 영화라 '설마 눈물이 나랴' 하며 영화를 봤는데, 저의 마음을 울리는 장면이 있었고 울컥 올라오는 감정에 이어 눈물이 와락 나더라고요.

제 눈물샘의 첫 번째 열쇠는, 힘없는 선왕이 다시 힘을 얻어가는 과정에 순박한 백성들이 함께했다는 것이었어요. 삶의 의욕을 잃었던 노산군(단종)이 조금씩 마음을 열며 삶의 의지를 갖게 된 건 순수한 마음으로 선왕을 걱정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유배당한 선왕이 백성들의 삶에 직접 들어가게 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나누어 먹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가며 정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름다운 그림처럼 그려졌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눈물샘을 열어준 두 번째 열쇠는, 모든 것을 잃었던 선왕이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 일어서며 '이 백성들을 위한 좋은 왕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슴에 품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꿈을 꾸는 것을 보는 순간, 또 한 번 눈물이!!

그리고 세 번째 열쇠는, '삼족을 멸한다'고 했는데도 친구가 된 단종의 시신을 건져 수습한 엄흥도의 사랑과 우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둠 속에 던져넣을지라도, 신분을 뛰어넘어 쌓은 사랑과 우정을 지키고자 했던 한 사람의 마음이 제 마음에 와닿은 순간, 눈물이!!!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인터뷰 내용도 또 다른 감동을 줍니다. "실현되지 못한 정의는 잊혀도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악당을 보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억하고 싶었다." 따뜻한사랑방 이재신 집사

## 어릴 적 소중한 기억

이곳 무림리도 조석으로 건기 좋은 날씨가 찾아왔다.  
이때쯤이면 졸업식의 여운이 가시기 전인데 학교는 다시 새 학기 준비로 다들 분주해진다.  
우리 공동체안의 학교도 마찬가지로 다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항상 그렇지만 교사들은 방학 아닌 방학을 보내며 부지런히 개학준비에 여념이 없다. 안쓰러울 정도로...  
문득 옛 추억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긴다.  
1971년 봄으로 기억된다.  
그때의 입학식 풍경 까까머리의 여덟살 소년이었던 시절,  
국민(초등)학교 운동장과 큰 강당에서의 입학식, 많은 입학생(신입생)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중에 까까머리 학생도 겨우네 노느라 터져버린 손등을 만지작만지작 거리며 긴장의 눈동자만 멀뚱멀뚱... 엄마 손을 놓칠세라 겁먹고 (그때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서) 유난히 커보였던 운동장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어린 마음에도 그 풍경이 낯설고 힘들어 했었던 것 같다.  
살아오면서 여러 번의 입학식과 졸업, 아련하게나마 기억에 남는다.  
때마다 새로운 설렘과 두려움은 늘 함께 했었던 것 같다.  
큰 운동장, 낯선 얼굴들, 하얀 손수건, 이 모든 기억들이 그 순간들이 지금의 나의 삶에 작게나마 의미 있는 일이었음을 알 것 같다.  
세월이 흘러 세상은 변했지만 말이다.  
나는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아니 달라져있을까? 궁금하다.  
어쩌면 나는 그때 그 어린 여덟 살짜리 소년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다.  
이제는 나이에 걸 맞는 모습을 바라며,, 그리고 늘 새롭게 태어나는,, 또한 소망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담으며...

그루터기사랑방 김중필 집사

##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436장, 397장  
성 경 : 로마서 15장 1-16절  
말 씬 : 사도 바울의 바램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미국과 이란 전쟁>  
이란 땅에 평화가 찾아오며 미국과 이란간의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이란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잘 견디고 신앙을 더욱 단단히 할 수 있도록.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공협 서울, 경기, 강원 네트워크>  
이번 한공협 모임들을 주관하고 진행하는 서울, 경기, 강원 공동체들이 더욱 마음과 힘을 모아서 한공협의 사역을 발전시키고 든든히 할 수 있도록. 또한 말은 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해주시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 1) 이윤희 권사님 어깨 회복, 진정행 권사님 손목 회복
  - 2) 계속되는 교육관 증축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 3) 학교들의 새 학기가 순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 <생활공동체 소식 >

사랑방공동체 학교들의 개학을 준비하느라 각 학교 선생님들은 회의와 공간 청소 및 정리등으로 한 주간을 바쁘게 보냈습니다.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할 생각에 기대하는 마음이 큼니다.

교육관 증축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거한 자재들을 처리하는 일을 주말에도 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이사야서 55 : 1-3 인도자  
28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8 : 34-36 인도자  
85, 310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나를 증명하는 삶에서 주를 신뢰하는 삶으로 ” 정재훈 목사

로마서 4 : 1-5 설교자  
259 비움사랑방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304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김기환 차현주 / 봉헌위원 : 이재신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홍인 정아민

##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 나를 증명하는 삶에서 주를 신뢰하는 삶으로

삶에서 느끼는 갈망. 사람은 누구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갈망합니다. 세상은 흔히 '행한 대로 받는다'는 '인과율'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법칙으로는 때때로 마주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삶의 근원적인 그리움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를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은혜의 삶. 세상은 끊임없이 증명과 보상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은혜의 삶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태일 목사 / 기도 : 하경임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며 봄이 오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기온은 따뜻한 게 밖에 나가 신나게 뛰어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을 지나 언제나 찾아오는 봄이 올해도 너무 반갑고, 새 학기에 시작을 기분 알려줍니다.

학교는 새 학기 준비로 바쁘게 돌아갑니다. 학교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닦고, 정리합니다. 아이들에 맞게 새롭게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기대도 됩니다.

올해 함께하는 친구들은 모두 3명입니다. 작년에 같이 지낸 친구들과 친오빠를 통해 오랜 시간 만나온 신입생이 올해 꾸러기학교를 다닙니다. 모두 친숙하고, 잘 아는 친구들이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필요한 것들에 맞춰 준비를 합니다. 또 올해는 입학식 준비도 새로운 방식으로 멋지게 꾸미고, 한마음이 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꾸러기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배우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꿈꿉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올해의 멋진 성장을 기대합니다.

< 교사 : 이어람 >

### 어린이학교

쌀쌀하지만 따스한 햇살이 내리고 봄을 알리듯 맑고 파란 하늘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신 편입생 가정방문이 있었습니다. 꾸러기 앨범을 나와 설명해주며 추억을 되살리기도 하고, 잘 정리된 옷장을 열어 보이며 으쓱이는 아름이, 찰떡을 맛나게 만들어서 대접하고 큰

대형견을 동생으로 둔 수줍음 많은 유나, 현관문 여니 썸그라스 끼고 선생님들을 맞아주곤 귀퉁이 의자에 앉더니 성경책을 읽더니 잠시 후 양손에 휴지를 얼굴엔 탈을 쓰고 탈춤을 멋지게 춰서 부모님도 놀라게 한 하민이, 아직 지음이의 가정방문이 늦춰져서 못갔지만 넘 행복 가정방문이었습니다.

화월부터 교무실 정리를 위해 3명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동지를 정리하고 놓아둔 자료들을 교무실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천사님들 고맙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덜 되었지만 흐뭇합니다.

3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입학식이 있습니다. 1학년 황보아람 · 차하민 · 이지음, 4학년 전유나의 입학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어린이학교에서 행복한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 멋쟁이학교

햇살이 포근하고 따뜻해졌습니다. 멋쟁이들이 방학을 마치고 봄을 함께 즐길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감이 솟아납니다. 오늘은 멋쟁이학교의 입학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 말인 즉슨, 축복과 응원 속에서 새롭게 멋쟁이가 되는 친구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체 속에서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런 만큼 선배들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마련이지요. 처음으로 선배 역할을 하게 될 작년의 신입생들 두근거리는 가슴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입생의 긴장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요.

이 모든 마음을 안고서 진행되는 입학식, 그리고 2026년도 첫 개강여행. 모두가 마음을 잘 모아서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과정의 좋은 첫 발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만나요~

< 교사 : 이어진 >